『신앙과 학문』. 29(1). 67-87.
https://doi.org/10.30806/fs.29.1.202403.67

다윗의 딸 다말이 경험한 트라우마 분석 및 치료적 함의*

Analysis of Tamar's Trauma and its Therapeutic Implications in Theodrama

이 해 루 (Haeru Lee)**
김 규 보 (Kyu Bo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In a world where God's created order has collapsed, humanity is still experiencing various traumas. Understanding and healing trauma biblically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individual recovery but also for the community to achieve Christiformity together. In this study, we conduct research on the trauma experienced by David's daughter Tamar in order to analyze the trauma experienced by biblical characters and suggest therapeutic implications.

Because most research on Tamar's story is conducted within feminist discourse,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it. Tamar, the only one with her own voice, is reinterpreted as a wise woman in contrast to her foolish Davidic men, and a hero who resisted violence. These attempts play a part in revealing the lives of women and the violence inflicted on them that have been concealed.

However, within feminist discourse, Tamar is paradoxically consumed as a tool to expose men's violence and foolishness, is trapped in the narrative of a failed hero, and has the limitation of being marginalized in the Theodrama.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analyzes common claims in feminist discourse and reveals that within the Theodrama, Tamar is also united with the grace of the cross. Therefore, we present counseling implications for trauma recovery.

Key words: Tamar, Trauma, Feminism, Theodrama, Biblical Counseling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1일 최종수정일, 3월 4일 게재확정.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경적상담학 박사과정(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lhr@chongshin.ac.kr

***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조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kyubkim@csu.ac.kr

I. 들어가는 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인류는 지금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트라우마(trauma)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행에 노출되어 광범위한 우울 증상과 불안 등 정서의 부정적 변화, 과각성(hyperaraousal), 해리 증상(dissociation)이나 이인증(dispersonalization), 비현실감, 외상성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자극에 대한 회피 반응 등을 경험하는 것이다(APA, 2013: 289-29).[1] 최근 트라우마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받는 정서적 학대나 이혼, 실직, 학교나 직장에서의 부적응 등 개인을 압도하는 고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Briere & Scott, 2020: 3-4). 즉 트라우마란 외상성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통 및 영적, 심리적, 신체적 반응의 총체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에서 다양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전인적 수준의 상처이다(김규보, 2017: 89). 성경에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성폭행 트라우마를 경험한 다말의 이야기를 구원드라마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치료적 함의를 고찰한다. 다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현대 여성주의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말에 대한 많은 여성주의 연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인권, 치유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주의 학자들은 남성 중심의 권력과 폭력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성폭행 경험의 본질과 상처의 회복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이은애(2019: 220)는 다말의 외상성 경험을 '권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규정하며 왜곡된 권력 구조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박유미(2018:149-150)도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행은 남성의 소유물을 훼손한 사건으로 여겨질 뿐이며, 이로 인해 성범죄-전쟁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여성 경험 중심의 성경 해석은 다말을 반복되는 폭력의 패턴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낸 영웅, 다윗왕조 남성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어 그들을 혼돈과 불의에서 구원할 '동반자인 지혜자'로서 자리매김하게 한다(이은애, 2019: 220 ; 박유미, 2018: 149-150).

그러나 문제는 여성주의 담론에서 주장하는 논의가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험과 인권을 강화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을 편향되게 해석하거나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부분까지 상상에 의존해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정희

1) DSM-5에서는 외상성 사건에 대한 노출이 다음 네 가지 방식 중 한 가지(혹은 그 이상)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정의한다. 방식은 (1) 사건을 직접 경험, (2) 타인에게 발생한 사건을 직접 목격, (3) 사건이 가족, 가까운 친지 혹은 친한 친구에게 폭력적이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했음을 알게 됨, (4) 사건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세부사항에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노출됨, 중 하나이다. 이 방식에 부합하지 않은 미디어나 영화, 사진 등의 방식으로 노출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성(2008: 203-204)은 여성 관점의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 아담의 첫 번째 부인 릴리스의 이야기를 제시하는데, 이는 여성 성폭행 피해자의 재활과 생존을 위한 도구로 성경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손운산(2004: 666-667) 역시 피해자의 상처 입은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 이후 다말의 이야기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회복의 도구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런 시도는 비록 피해 여성의 회복을 위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성경을 임의로 재해석하거나 성경에 없는 내용을 상상에 의존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성경적 관점을 벗어난다. 온전한 성경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성경을 분석하는 연구자는 성경의 묘사가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서 개인의 임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로 연구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문병호, 2020). 성경의 가르침보다 개인의 철학이나 목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자칫 성경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재해석된 다말은 폭력에 저항했으나 막지 못했고 가해자의 죄를 고발하였으나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박유미, 2018: 138-139 ; 김이곤, 1986: 110 ; 김순영, 1999: 10-11). 이는 다말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이루었으나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드라마에서도 소외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여성주의 담론은 다말의 고통에 다양한 해방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말의 고통이 십자가에 종속되는 것을 부인함(Trible, 2022: 38)으로써 구원드라마 가운데 다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원드라마에서 소외된 다말은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말 이야기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의 이해와 한계를 분석하고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읽음으로써 다말의 트라우마 사건을 통해 성경이 제공하는 치료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다말의 트라우마 사건 개요

다말은 다윗과 그의 네 번째 아내인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성경에서는 다말을 다윗의 딸이 아닌 압살롬의 누이로 설명한다(삼하 12:1).[2] 다말은 이스라엘 왕녀이자 다윗의 딸들(삼

2) 이에 대해 Anderson (2001: 299)은 본문을 압살롬과 암논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대결 구도로 설명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로 해석한다. 한편, 이은애(2019: 224)는 이러한 설명을 다윗에게는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한 존재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하 5:11-16, 역상 3:1-9 ; 14:3-7) 중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정숙한 처녀[3]였으므로 채색옷을 입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은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4]했으나 처녀인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울화로 병이 났다(삼하 13:1-2). 이를 안 요나답의 간교한 꾀를 따라 암논은 병든 체한 뒤 그를 찾아온 다윗에게 '다말을 불러와 그녀가 만든 과자를 내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삼하 13:5-6). 다윗의 명으로 암논의 집에 온 다말은 그를 위해 과자를 만든다(삼하 13:7-8). 암논은 모든 사람을 내보낸 뒤 다말을 붙잡아 자신과 동침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말은 정당한 말로 거절한다(삼하 13: 9, 11-13). 그럼에도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성폭행한다(삼하 13:14).

다말을 성폭행한 뒤 암논은 이전에 그녀를 탐했던 정욕보다 더 크게 그녀를 미워하여 자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폭행보다 더 큰 악이라는 다말의 호소를 무시하고 종을 시켜 다말을 쫓아낸다(삼하 13:15-17). 다말을 쫓아내면서 언급한 "계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조트)로 여성 지시형용사 '이것'을 의미한다. 이는 암논이 다말을 물건 취급하며 멸시했다는 의미זֹאת[5] 다말은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자신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는다(삼하 13:19). 사건을 들은 그녀의 동복 오빠 압살롬은 그녀에게 잠잠히 있으라 하고 자신의 집에 있게 한다. 그 후 그녀는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낸다(삼하 13:20). 이후로 다말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자기 머리에 재, 티끌을 뒤집어쓰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비참함, 애통 등을 표현하는 행위이며(수 7:6, 삼상 4:12, 욥 2:12, 애 2:10, 겔 27:30, 에 4:1, 계 18:19) 옷을 찢는 것도 금식, 재 위에 누움, 베를 동임 등처럼 극도의 고통이나 슬픔, 애곡을 드러내는 행위이다(창 37:29, 삼하 1:11; 13:31, 왕하 6:30; 34:19, 느 9:1, 사 37:1). 이러한 행동을 통해 성폭행을 당한 다말은 극도의 비참함과 애통한 상태에서 과부가 된 것처럼 통곡하고 괴로워함을 알 수 있다(Anderson, 2001: 299).

또한, 성경은 압살롬의 집에서 지내게 된 다말의 상태를 '처량하게'라고 묘사(삼하 13:20)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וְשֹׁמֵמָה(워쇼메마)이다. 워쇼메마의 동사원형 שָׁמֵם(샤멤)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광야, 예루살렘의 멸망 등을 묘사할 때 쓰이는 동사로 '쓸쓸하게 있는', '황폐하게 있는'이라는 의미이다(강병도, 2009: 25-28). Brouer(2014: 10)는 이야기의 저자가 다말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 광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를 사용하여 그녀의 삶이 얼마나 생명 없는 삶이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3) Mattew Henrry (2009: 629)는 20절을 근거로 다말이 부정함을 미워하는 정숙한 여자였다고 본다.
4) Mattew Henrry (2009: 622)는 이것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마귀가 불어넣은 음욕, 육체의 정욕으로 해석한다.
5) Trible (2022: 120)은 SAV, RSV, NJV 등의 번역본과 달리, 히브리어에는 이 지시형용사만 있으며 '이것'은 암논에게 다말은 일개 사물, 버리고 싶은 것, 쓰레기에 불과했다고 설명한다.

다말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으나 다른 행적은 기록되지 않으며(삼하 13:21),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였으나 잘잘못을 말하지 않다가 만 2년 뒤 암논을 살해한다(삼하 13:22). 요나답의 입을 통해 암논의 죽음은 그의 죄에 대한 압살롬의 사적 보복임이 분명히 드러난다(삼하 13:32).

2. 다말을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 담론에 대한 성찰

다말을 비롯한 성경 속 성폭행 피해 여성 이야기는 여성주의 학자들의 주요한 주제이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을 도구적으로 소모하는 해석을 비판하고 남성 중심 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이영미(2021: 141-142)는 성경 저자가 솔로몬의 왕위계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말에게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남성들의 힘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라고 고발한다. 박유미(2018: 148)도 압살롬의 암논 살해는 정적 제거이며 다말의 고통은 명분으로 소모될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피해 여성에 대한 도구적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주의 학자들은 다말을 남성 중심적 사회의 폭력 속에서도 고통을 잘 극복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회복한 여성 영웅의 전형으로 여기거나(정희성, 2019: 215) 남성의 폭력을 저지하는 지혜자로 재해석하기도 한다(Trible, 2022: 136-139). 또한, 아버지이자 권력의 상징인 남성 다윗의 추악함을 고발하는 고발자로 해석하기도 한다(박유미, 2019: 53-58).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남성주의적' 관점에 반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일부 학자는 다말이 성폭행당할 때 부재하신 하나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분노하고 항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손운산, 2004: 652-655).

또한 여성주의 담론은 그동안 쉽게 드러날 수 없던 다말 같은 성폭행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호경(2004: 122-123)은 다말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성폭행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왜곡된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유미(2019: 63)는 암논의 성범죄를 다루는 방식이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다루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회개를 촉구한다. 같은 맥락에서 강호숙(2020: 112, 137)은 지금까지 교회가 유교 전통과 혼합된 왜곡된 기독교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묵인해왔다고 비판하고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2, 3차 가해를 우려하며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Trible (2022: 37)은 성경 속 희생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여성들의 고통이 간과되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뉴욕 거리에서 '내 이름은 다말'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던 학대당한 여성을 보며, 쓰레기통에서 어느 여성이 몸이 토막난 채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이 특별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 여성주의 담론은 여성들이 끔찍한 사건

으로 해를 입었음에도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현실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다말은 '성폭행 피해 여성'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갇혀 구원드라마에서 소외된다. Trible (2022: 38)은 하나님 없는 치열함 속에서 학대당하는 여성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지금도 반복되는 과거를 기억하며 다시는 다말에게 벌어진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함으로써 이 시대를 구속하려 한다. 그러나 그녀가 단언한 것처럼 다말의 고통을 십자가 고통에 종속시키는 게 허위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다말의 구원을 찾는 것이 엇나간 판단이라면, 다말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결국 실패한 저항과 비극밖에 없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몸부림과 상처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주의 담론을 넘어 성경의 구조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남성 가해자에게 희생당하는 여성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넘어 다말을 '고통당하는 한 영혼'으로, '권력 다툼과 폭력의 남성 카르텔'의 제한을 넘어 '인류의 불순종으로 전적 타락한 인류의 비참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말을 통해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드라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성경적 치유와 회복의 원리가 담겨있다. 그렇다면 다말 이야기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의 한계는 무엇이며 구원드라마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1) 여성 피해자 - 남성 가해자 이분화

여성주의 담론의 성경 해석은 전통주의 해석에 전제된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관점을 거부하고 여성 주체가 여성의 입장과 경험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을 전제한다(강호숙, 2020: 120-121). 여성주의 담론은 주로 다말이 남성에 의해 주변화된 여성으로 취급되었음을 지적한다. 정희성(2019: 212)은 '다말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 인물이 압살롬이라는 전통주의적 해석(Brueggemann, 2000: 427)'이나 '다말의 성폭행 사건을 주변에서 일어난 사적인 범죄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왕위계승권자들의 권력 다툼이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Anderson, 2001: 297)'이 여성을 주변화하고 다말의 역할이나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성경 속 여성의 역할이나 그들의 경험,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관점은 여성주의 담론의 한계도 드러낸다. 그중 하나는 여성 인물과 그의 경험을 중심에 놓기 위해 이야기의 구조를 피해자 여성과 가해자 남성으로 이분화한다는 것이다. 박유미(2016: 13)는 다말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그녀(다말)는 다윗 왕조를 불법과 혼돈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여성 지혜자로 등장을 한다. 그녀

> 는 지혜로운 말로 불법성과 폭력성을 막으려 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묵살되며 성폭행이라는 폭력과 불법이 일어났고...다말의 정의로운 외침을 또한 다시 묵살한 어리석은 다윗의 태도로 인해...다윗 왕조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지혜자 다말은 다윗과 그의 가정의 남성들에게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이분화 속에서 여성은 피해자이자 지혜자이며 선이고, 남성은 가해자이자 어리석은 자이며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생긴다. 물론 성경 속에 묘사된 성폭행 사례 가운데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남성 피해자와 여성 가해자의 이야기도 있다.

성경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성폭행 피해자는 디나, 롯, 레위인의 첩, 다말이다. 미수까지 포함한다면 롯과 레위인(삿 19:22), 원치 않는 동침을 수차례 요구당한 요셉(창 39:7-20)이 있다. 요셉은 여성 가해자(보디발의 아내)의 부당한 요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거부하였으나 옥에 갇히게 된다(창 39:9). 성폭행 피해자 중 유일한 남성인 롯은 친족이자 여성인 자신의 딸들이 가해자이다. 더욱이 이 일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불상의 상태에 이르게 한 점과 성폭행을 반복한 점에서 중범죄이다. 그럼에도 롯의 반응은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가 전부이며 어떠한 정서 행동 반응이 기록되지 않고 이후 행적도 기록되지 않는다(창 19:33, 35). 롯의 이야기는 훗날 이스라엘 자손과 반목하게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유래이다. 롯은 자신의 두 딸에게 '후손을 이을 목적'으로 도구화된 것이다(창 19:32). 이들은 타락한 이 세상의 죄와 고통은 어느 성별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성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누구라도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롬 8:22).

2)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다말

다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폭력에 저항하며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으로 기록되지만 결국 실패한다. 그녀는 암논의 성폭행을 막지 못했고 그를 정당하게 심판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박유미(2018: 140-144)는 다말의 이러한 실패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무력화되어 여성 연대가 불가능하고, 권력을 가진 남성 다윗은 아버지의 역할을 유기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성을 자기 소유물로 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 압살롬은 암논의 성폭행을 '자기 소유에 대한 침해'로 여겼기 때문에 보복했을 뿐 다말을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순영(1999: 8-9)은 다말의 이야기가 왕위계승권을 둘러싼 갈등의 밑그림으로 소모되었다고 비판하며 다윗의 비인격적인 모습을 고발한다. 정

혜진(2020: 35-39)도 다말 이야기가 여성은 남성들과의 관계로만 묘사되며, 다말의 이야기는 권력을 가진 남성 카르텔 속에서 존엄과 미래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처량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여성의 비정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본다. 이은애(2019: 217) 역시 다말과 디나(창 34:1-31), 레위인의 첩(삿 19:16-30) 등 성폭행 사건의 해결이 피해 여성의 경험과 주체적 참여가 아닌 남성들의 감정과 이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담론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성폭행 피해자인 여성 다말이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주의 담론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첫째, 여성만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가? 둘째, 누가 주체인가? 셋째, 무엇이 진정한 문제해결인가?

① 여성만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가?

여성주의 담론에서 '피해 여성의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성폭행 사건-전쟁의 패턴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중심으로 비합리적,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 발생한다는 비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첫째,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둘째, 피해자를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가해자를 심판하며 셋째, 피해자를 적절하게 돌보는 것이다(박유미, 2018: 149-151).

하지만 여성만 이런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남성 피해자의 이야기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롯의 경우, 그는 자신의 친딸들에게 두 번이나 성폭행을 당한다(창 19:30-35). 딸들은 아버지를 자손 번식을 위한 도구로 소모한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불상의 상태를 만드는 계획범죄를 실행하면서도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두려움이나 죄의식을 느낀다는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사건 이후 다말과 달리 롯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가해자들의 계획은 성공하여 모압과 벤암미라는 아들을 낳는다(창 19:36-38).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에서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피해 남성 롯은 딸들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되지 못한다. 술에 취해 딸이 누웠다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저항할 수 없었고 아들이자 손자들의 태어남과 번성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알 수 없다.

이처럼 성경은 여성-남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성과 남성 모두 타락한 이후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멀어지고 왜곡되었는지 보여준다. 타락한 인류가 만든 사회와 문화, 제도는 온전하지 못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성별과 무관하게 여성이나 남성 모두 상황에 따라 주체성을 갖지 못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소리가 무시당한 채 미완의 이야기로 남겨질 수 있다.

② 누가 주체인가?

피해자의 주체성은 외상성 사건과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주체'에 의해 완성된다. 주체는 피해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능력을 가진 자이다. 여러 여성주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친오빠인 압살롬과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에게 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Trible, 2022: 133 ; 박유미, 2018: 53). 다말은 비록 신체적 약함 때문에 암논의 폭력을 막지 못했으나 당시의 제한된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 피해자로서 주체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말의 사건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율법상 가해자 암논과 보호자 압살롬,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에게 전가된다. 다시 말하면, 여성주의 담론은 다말의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당시 상황과 문화의 한계 속에서 오히려 주체성에 대한 책임을 남성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암논, 압살롬, 다윗 중 그 누구도 참된 주체가 되지 못한다. 암논이 이 사건에 주체로서 행동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율법상 암논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다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압살롬의 반응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부분 여성주의 학자들은 압살롬의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는 말을(삼상 13:20) 침묵 강요로 해석하고 암논 살해 역시 정적제거 목적이 더 크다고 본다. 그러나 Trible (2022: 53)은 압살롬이 다말의 조언자가 되었다고 본다. 완곡어법을 사용한 것 역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다말에게 일어난 일이 그토록 경악스러운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다말을 위한 복수를 구상하는 등 동생의 지지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본다. 정희성(2019: 215-216) 역시 압살롬이 다말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녀를 위해 암논을 살해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압살롬의 해결 방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다윗에 대해서는 여성주의 담론은 물론 전통적인 해석에서도 비판적이다. 성경에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후 다윗의 행적은 밝히지 않는다(삼하 13: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울부짖음을 듣고 가해자 암논에 대해 다윗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율법을 고려하면 피해자 다말의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이 져야 할 책임이 있었다. 아버지로서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딸을 그와 혼인시킬 의무[6]와 왕으로서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의무[7]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율법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다윗이다. 그

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출 22:16-17)

러나 다윗은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며 민심을 얻으려 할 때 한 말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네가 바르지만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삼하 15:3)는 말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다윗에게 압살롬이실망했음을 은연중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압살롬 역시 다윗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치리해 줄 것을 기다렸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Anderson (2001: 304)은 70인역에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못된 짓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령 다윗이 나섰어도 율법의 한계 때문에 암논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윗이 암논의 범죄나 압살롬의 보복에 협력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이야기의 저자가 다윗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설명한다. Henry (2009: 630)는 그와 달리 자신을 범죄에 끌어들인 암논에게 다윗이 엘리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한다(삼상 2:22-25). 그리고 다윗이 다른 이의 죄에 공의를 시행하는 데 따르는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침묵한다고 본다. Brueggemann (2000: 431) 역시 암논의 범죄가 다윗의 과거 범죄와 너무나 비슷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박유미(2019: 62)는 다윗이 아들만을 편애하여 '가해자의 보호자'로서만 행동하였으며 자신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어 화를 면했음에도 암논의 회개 기회를 박탈하여 더 큰 비극을 맞았다고 지적한다. 이은애(2019: 235)도 다윗이 아들들의 죽음에 보인 통곡과 딸의 트라우마에 보인 침묵을 비교하며 그의 아들 편애를 지적한다. 이 편애는 왕의 의무인 정의와 공의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왕권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Adelman (2021: 94-95) 역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삼하 12:10)"라는 저주의 첫 형벌을 받은 다윗 집안 여성을 다말로 본다. 이 형벌이 다윗 자신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말을 보호하지도 암논을 벌하지도 않은 것은 다윗의 집안과 왕국의 부패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왕으로서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신 17:18-19)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삼하 15:2, 왕상 3:6-14 ; 16-28) 암논의 범죄와 다말의 울부짖음에 침묵한 듯한 다윗의 모습은 오래 슬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명령을 내려주던 모습과도 대조된다(삼하 14:2-20).

여러 논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왜 침묵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70인역의 내용대로 암논을 사랑하여 엄하게 대하지 못했을지라도 다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여성주의 학자들의 주장대로 아들만 편애하고 딸은 아끼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다윗이 심히 노한 뒤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 17:18-19)

다윗이 이 사건에 '침묵'했다는 판단의 근거는 암논이 살해되기 전까지의 기록 부재와 압살롬의 암논 살해이다. 이는 다윗이 암논을 징계했거나 다말에게 충분히 보상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판단이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답을 통해 사건이 벌어진 날부터 압살롬이 이미 암논 살해를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삼하 13:32). 즉, 다윗의 조치와 상관없이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암논 살해가 다윗의 행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율법상 다말에게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다말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였으므로 가해자 암논은 피해자의 아버지 다윗에게 납폐금을 내고 다말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출 22:16-17, 신 22:28-29). 그러나 둘은 남매이므로 율법상 혼인이 불가능하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성폭행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혼인이나 납폐금 외엔 없고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아닌 가해 남성이 혼인을 거부할 경우는 율법에 나오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율법의 한계 속에서 다윗은 율법을 뛰어넘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암논의 성범죄에서 피해자 다말은 주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나 당시 여성의 지위와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암논, 압살롬, 다윗도 완전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었다. 율법조차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역시 다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참된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트라우마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한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도 가해자도 보호자도, 법 제도와 실행자도, 사회문화적 환경도 각자의 한계로 온전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다말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트라우마 사건과 닮아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주체인가? 이런 현실 속에서 진정한 문제해결의 주체는 후술할 구원 드라마 안에서 찾을 수 있다.

③ 무엇이 문제해결인가?

성경 속 외상 사건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상실했던 건강과 가족, 재산 등을 되찾는 것처럼 보인다.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자신의 꿈 해석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한 뒤 부와 명예, 새로운 가족을 얻고 잃었던 가족까지 되찾아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같다. 욥은 원인 모를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킨 보상으로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다. 이처럼 트라우마의 해결은 손상된 신체적, 심리적 혹은 사회경제적 기능이 회복되고 트라우마 전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문제해결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행복한 결말과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문제해결이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고찰해보자.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건 그의 고용주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창 39:2-6).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창 40:8).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요셉의 시도는 관원장의 망각으로 좌절된다(창 40:9-15, 23). 후에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나 그 결과 즉시 문제가 해결되거나 곧바로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은 아니다. 형들을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형제의 손에 노예로 팔려간다(창 37:12-36). 하나님의 뜻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감옥에 갇히고(창 39:7-20),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한 결과도 당장 찾아오지 않는다(창 40:23).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나서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창 41:37-45).

드디어 요셉에게 부와 명예가 찾아온 것 같지만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그가 겪은 고생의 보상으로 주어진 부귀영화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창 45:5-7). 요셉 이야기의 진정한 문제해결은 대기근에서 이스라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는 것이다(창 45:5-8).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욥의 내러티브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다. 욥은 전 재산과 가족, 건강까지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욥 1:20-22; 2:10). 하지만 얼마 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던 욥과 친구들은 격한 논쟁을 벌인다. 하나님의 공의에만 치우친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의를 확신하는 욥은 마침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불의로 여긴다(욥 32:1-3). 욥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한다.

욥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문제해결은 의인 욥에게 왜 고난이 닥쳤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욥 38:1),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이 닥쳤는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욥이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디에 계셨는지 말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의 창조자시며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을 드러내실 뿐이다. 욥은 그 섭리 앞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긴 죄를 회개한다(욥 38:1-41:34, 42:2-6). 욥이 궁극적으로 경험했던 진정한 문제해결은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욥은 시공간을 넘어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의 상징이 되어 이정표를 제시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욥이 직면한 극심한 고통의 문제를 해

결하신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트라우마 상황에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문제해결은 피해자의 완전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회복 혹은 트라우마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여러 인물의 트라우마 경험을 통해 진정한 문제해결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해결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김규보, 2022: 142-143).

이런 맥락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드라마를 배제한 채 다말의 트라우마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면 다말의 이야기는 비극일 뿐이다. 공의가 실현되리라는 그녀의 기대는 좌절되고 보상이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다말 이야기는 이렇게 한계를 맞이한다. Trible이 내린 결론처럼 "슬픈 이야기에는 행복한 결말이 없다(Trible, 2022: 38)." 그러나 여성주의 담론 넘어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드라마 안에서 진정한 문제해결의 의미로 들어갈 때 다말의 이야기는 다른 결론을 향한다.

3. 구원드라마 안에서의 다말 이야기

성경에는 수많은 외상성 사건과 트라우마가 있고,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탄식이 묘사된다. 이들의 이야기를 주인공이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와 행복을 쟁취한 영웅 서사나 어떤 담론으로 이해한다면 이들의 고난은 도구적 소품으로만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 속 성폭행의 피해 여성 중 유일하게 폭력에 저항하고 부당함을 고발하며 잠잠하지 않고 사건을 드러내기에 여성주의 관점이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잘 드러내는 사례로 사용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드라마를 배제한 채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다말을 이야기의 주체로 삼게 될 때 역설적으로 그녀는 실패한 피해자가 된다. 다말은 저항했으나 폭력을 피할 수 없었고 고발하였으나 공정한 재판과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해자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보복살해를 당하기 전까지 아무런 율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서 다말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주의 담론에서는 다말이 목소리를 낸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다말의 사례를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하기도 한다. 정희성(2019: 212-217)은 다말의 경험을 '한 여성-놀이'로 재구성하여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투사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방편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의 분노와 소망을 투영하여 재구성한 이야기에서 다말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도 하고 암논 살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심판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성경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사례 분석 혹은 이야기 치료의 텍스트 정도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계시를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주의 담론의 시

도는 성경적이라 할 수 없다. 한상화(1997: 314)의 지적처럼 세속적 여성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성경 해석의 주체를 성령의 조명을 따른 말씀 자체에 두어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심창섭, 1991: 96).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와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고 왜곡하는 것은 그 목적이 비록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일지라도 자기 숭배가 된다. 자기 마음의 우상을 따른 죄인의 관점에서 죄로 깨진 창조 질서를 재구성하는 시도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창조 질서의 회복, 참된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성경의 인물,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의도를 지닌 인간의 정치사회적 담론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드라마 안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다(김규보, 2022: 84). 그렇다면,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째, 구원드라마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말 이야기는 타락한 현실의 한계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진정한 공평과 질서에 대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암논의 우월한 신체적 사회적 위계를 악용해 약한 자를 강탈한다. 법정적 해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한계, 율법의 맹점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을 정도로 다말을 아꼈던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해 정의를 세우고자 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도 아니고 생명윤리에도 어긋났다. 결국 그는 외조부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고 살해현장을 목격한 다른 형제들에게도 상처를 남겼으며, 궁극적으로는 반역과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인 율법조차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불렸던 다윗도 온전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는 타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드라마 안에서 이 타락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정의와 회복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롬 5:20),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만든 제도에 품었던 희망이 무너질 때 비로소 유일하게 완전한 정의와 공평과 회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신다(렘 33:15). 법도, 권세자도, 폭력도, 인간의 어떤 방식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깨진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한다(암 5:24). 결국, 다말의 이야기는 타락한 현실 속에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게 한다. 따라서 Kuyper (2020)가 옳게 주장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 위정자들의 정치, 법의 제정과 판단과 실행,

경제 원리와 윤리, 일상의 사회문화적 제도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의와 태도 등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질서가 세워질 때, 참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

둘째,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충만한 임재와 사랑이다. 다말은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소리 내어 저항하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는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잠잠해졌고 성경은 더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다. 그녀의 울부짖음에 다윗은 심히 분노하지만 침묵한다. 이러한 침묵을 마주할 때 고통을 겪는 이들이나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 모두 당혹감을 느낀다.

특히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아버지'인 다윗의 침묵에 대한 애석함은 외상성 사건을 겪으며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 '아버지'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다말의 울부짖음에 다윗이 침묵하였듯 하나님도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고 다윗이 무능하였듯 하나님도 무능하신 게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신성희·전혜연·장동진, 2023: 55-56). C.S. Lewis (2004: 22)는 고통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김규보, 2022: 106). 구원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은 한 순간도 당신이 택하신 자를 떠나지 않는다(사 41:10; 마 28:20). 그는 여전히 섭리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한다(행 17:28).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녀를 지키시며 구원드라마를 완성하고 계신다(시 121:4).

오히려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침묵은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중요한 치료적 함의를 제시한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침묵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녀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이다(김규보, 2022: 101-103).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말없이 고통과 수치를 지신 십자가가 성도의 고통이 연결될 때 성도는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드라마 가운데 초청된다. 그리고 고난의 침묵 가운데 존재의 부재로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존재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경험된다(김규보, 2022: 103). 고통으로 모든 언어가 상실된 가운데 그리스도가 고통 가운데 함께 침묵하신다.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알 때 성도는 죄와 고통을 넘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임을 깨닫게 된다(롬 8:26).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은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구원드라마 안에서 바라볼 때, 다말에 대한 다윗의 침묵도 다르게 이해된다. 어쩌면 다윗의 침묵은 자기 죄와 무관하지 않은 범죄의 현실에 탄식하며 한숨조차 내쉬지 못하는 고통의 표현일 수 있

다(삼하 12:11). 침묵이 위로가 되지 못한 채 방임과 직무유기가 되었을지라도 자기 죄에 짓눌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고 딸에게조차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할 수 없는 죄인의 소리 없는 절규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인간 다윗의 한계를 바라보며 다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 다윗에게 투영되었던 왜곡된 하나님 형상을 벗겨낼 때, 우리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듯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행 9:18).

죄인과 죄인이 만든 사회제도와 달리 하나님은 무능하지도 무정하지도 않으시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충만한 임재로 모든 고통과 절망과 울부짖음을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롬 5:8).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을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롬 8:2). 따라서 문제해결의 참된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문제해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준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트라우마의 파괴적인 흔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히 12:2). 성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매일 그리스도 닮음(Christiformity)을 실천하며 평안과 정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롬 8:35-39 ; 김규보, 2022: 89-90).

하지만 다말처럼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일으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트라우마 이전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데 소망을 둔다. 피해자가 완전하게 심판받고 철저히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소망일 수도 있다. 여성주의 담론이 다말의 이야기를 희망 없는 슬픈 이야기로 바라보거나 암논에게 정당한 심판을 하지 않는 다윗을 비판하는 것은 이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드라마나 웹툰에서 현재 기억을 가진 채 과거로 돌아가 사건을 예방하거나 가해자의 머리 위에서 완벽하게 복수하는 '회귀' 소재가 인기를 끄는 것, 사적 보복을 '정의구현', '참교육', '사이다' 등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이런 소망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돕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웹툰과 달리 현실에서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 사실 이런 방식의 소망은 외상성 사건이나 고통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왜곡된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왜곡된 소망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드러나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과 바람을 넘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하셨다. 십자가보다 안전과 행복, 완벽한 치유 혹은 가해자에 대한 만족스러운 처벌

등이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마음의 우상이다.

사적 복수 역시 세상 법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사적 제재로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은 압살롬의 암논 살해 계획과 닿아 있다. 압살롬은 다말의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암논에게 '정의구현'할 것을 결심한다(삼하 13:32). 그러나 압살롬의 사적 보복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한다. 그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반역자가 되고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다(삼하 15:7-12 ; 13:9-15).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않는 소망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더 큰 고통을 야기하기도 한다.

구원드라마 밖에서 다말의 이야기가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 처벌에만 소망을 둔다면 비극적인 미완의 이야기가 된다. 성폭행 피해 여성인 다말에게 유일한 구제 정책이었던 가해자와의 결혼은 다른 율법의 한계로 불가능하다. 혼인이 이루어진다 해도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뒤 미워하는 가해자와의 결혼생활에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오빠의 집에서 홀로 처량하게 지내게 된 다말이 당시의 사회문화 속에서 다른 회복의 소망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제해결의 주체로 여겨진 압살롬과 다윗은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가 해석될 때 구약시대 여성 다말은 십자가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된다. 그 섭리 안에서 죽음처럼 황폐해진 다말은 생명을 얻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게 된다(롬 8:2).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이다(롬 14:17).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말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딤전 1:1 ; 갈 5:1 ; 요 14:27). 세상에서 그녀는 욕을 당하고 처량해졌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됨으로 다말의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삼하 13:32 ; 고전 15:43).

III. 닫는 글

지금까지 다말 이야기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접근해 보았다. 여성주의는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 피해자-남성 가해자의 이분화와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담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성경은 외상성 사건이 성별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주체 역시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드러낸다. 성경은 다말의 비극적인 사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구원드라마에서 분리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 이야기가 갖는 치료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폭력이 가득한 다말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죄의 비참한 상태를 드

러내 오히려 참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둘째, 다말 이야기에 나타나는 침묵들은 당혹감을 주지만, 침묵 가운데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깨닫고 위로를 얻는다. 셋째,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트라우마 가운데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오늘날 세속주의의 물결이 과학과 현대 문명을 지배하면서 구원드라마는 인간의 문제해결에서 점차 소외되어 가는 듯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트라우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론과 담론이 형성되었고, 새로운 이론과 기법, 약물 등의 개발은 트라우마에 대한 온전한 치유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십자가나 구원드라마는 과학적이지 않거나 신뢰할만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방법론과 담론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치유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내담자의 전인 가운데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구원드라마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김규보, 2022: 87-90, 260-261). 이 원리는 트라우마와 같은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향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적 원리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가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들과 공동체에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강병도 (2009). **카리스종합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강유나 역 (2004). **헤아려 본 슬픔**. Lewis, C. S. (1947). *A Grief Observed*. 서울: 홍성사.

강호숙 (2020). 보수기독교 내 젠더인식과 젠더문제에 관한 연구: 성경적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4(2), 109-148.

권준수 역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n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서울: (주)학지사.

김규보 (2017). 트라우마에 대한 현대 심리학적 접근의 평가와 기독교 병리학적 제안. **성경과 신학**, 81, 171-205.

김규보 (2021). 기독교 상담의 텔로스: 기독교 아비투스로서의 상담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성경과 신학**, 98, 33-70.

김규보 (2022).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서울: 생명의말씀사.

김대영 역 (2001). **사무엘(하)**. Anderson, A. A. (1989). *Word biblical commentary*. 서울: 솔로몬.

김이곤 (1986). 다윗의 딸 다말 애도송. **기독교사상**, 29(11), 95-114.

차종순 역 (2000). **사무엘상·하**. Brueggemann, W. (1990). *First and Second Samuel: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김순영 (1999). 다윗 왕과 다윗 왕가의 여성들. **한국여성신학**, 39, 6-11.

김지호 역 (2022). **공포의 텍스트: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희생(40주년 기념판)**. Trible, P.(2022). *Text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40th Anniversary Edition*. 경기도: 도서출판 100.

김호경 (2004). 낮은 목소리-다말. **기독교사상**, 48(7), 116-123.

문병호 역 (2020). **기독교강요1**. Calvin, J. (1559).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 서울: 생명의말씀사.

박유미 (2016). 다윗 왕조의 동반자로서의 지혜로운 여성들: 사무엘서의 지혜로운 여성 연구. **성경과 신학**, 77, 1-28.

박유미 (2018).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 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24(4), 125-155.

박유미 (2019). 왜 다윗은 다말의 부르짖음에 침묵했을까?. 권지성 (편저).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 (pp. 46-65).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eigen kring*. 군포:

다함.

손운산 (2004). 다말 이야기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1), 643-670.

신성희·전혜연·장동진 (2023). 내적작동모델과 하나님 애착의 관련성 및 기독교 상담적 함 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시점에서. **복음과 상담**, 31(2), 41-68.

심창섭 (1991). 성숙한 시대의 감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칼빈의 여성관. **기독교교육연구**, 2(1), 77-103.

이동훈·김종희·이정은·김진주·강현숙 역 (2020). **트라우마 상담 및 심리치료의 원칙 제2판**. Brier, J. N. & Scott, C. (2013).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2e. 서울:(주)시그 마프레스

이영미 (2021). 그날 이후, 분노하는 다윗 궁정의 남자들과 침묵의 카르텔. **대한기독교서회**, 755, 140-151.

이은애 (2019). 권력과 성폭력: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4(3), 217-245.

정혜진 (2020).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다말의 이야기(삼하 13:1-22). **새가정**, 67, 35-39.

정희성 (2008). 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과 재활을 위한성서 읽기: 여성주의 목회신학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5(1), 203-228.

한상화 (1997).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신학과 여성해방. **한국개혁신학**, 3(1), 311-349.

Adelman, R. (2021). The Rape of Tamar as a Prefiguration for the Fate of Fair Zion.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37(1), 87-102.

Brouer, D. (2014). Tamar's Voice of Wisdom and Outrage in 2 Samuel 13. *PriscillaPapers*, 28(4), 10-13.

다윗의 딸 다말이 경험한 트라우마 분석 및 치료적 함의

Analysis of Tamar's Trauma and its Therapeutic Implications in Theodrama

이 해 루 (총신대학교)
김 규 보 (총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인류는 지금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도처에 잠재한 트라우마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윗의 딸 다말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치료적 함의를 탐색한다.

다말의 이야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 대부분은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주의는 다말 이야기에 대한 기존 해석이 남성 중심적이며 그녀를 다윗 왕가의 권력투쟁 맥락에서 도구적으로 소모한다고 비판한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 성폭행 피해자 중 유일하게 목소리를 낸 다말은 어리석은 남성들과 대조되는 지혜자, 폭력에 저항한 영웅적 인물로 재해석된다. 이런 여성주의 담론의 시도는 그간 은폐되어 온 여성의 존재, 여성의 삶 및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드러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일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성주의 담론에서 다말은 역설적으로 남성의 폭력성과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도구적 역할로 소모되고 실패한 영웅 서사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다말을 구원드라마에서 소외시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를 바라볼 수 없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여성주의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해석하여 상담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여성주의 담론에 나타나는 여성 피해자-남성 가해자 이분화와 여성 피해자의 주체성에 대한 주제를 분석하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해석하여 상담적 함의를 세 가지로 제언한다. 첫째,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죄와 비참한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께만 진정한 구원과 공의가 있음을 드러낸다. 둘째, 트라우마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닌 충만한 임재이다. 셋째,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짐에 있다.

주제어: 다말, 트라우마, 여성주의, 구원드라마, 성경적상담